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병술



농식품부가 지난 7월8일부터 1박 2일 간 개최한 '해삼전문가 컨퍼런스'에 수출부...

세계시장에서 보기 드문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 품목인 해삼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선 '미스테리하다'

'해삼 수출산업화'의 꿈 이루나

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화와 생활 폐수 등으로 인한 연안 오염으로 양식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중국의 양식해삼 생산량은 2007년 25만톤을 정점으로 이후 줄어들어 지금은 연간 생산량이 20만톤 이하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거문도, 완도·도, 태안·보령, 서해 5도 등 남서해안과 고성에서 총무·거제에 이르는 동남해안은 중국보다 더 좋은 양식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1년 이상 전남도, 완도군 등과 추진해 온 해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구, 광역클러스터사업)이 지방비밀농산물에 걸려 2011년도 사업신청사마저 제출하지 못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던 중 이번 컨퍼팅은 해삼 수출산업화 추진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은 중국에 10년 이상 뒤져 있고 공급단가가 2배 이상 높다. 그럼에도 이식승인을 허용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해 놓고, 일부 종묘업자들은 중국의 열성 종묘를 밀수입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류사업에 공급해 왔다. 지자체의 방류사업 이외에 민간 양식업자는 높은 종묘가격 때문에 양식산업에 뛰어들 의욕마저 갖기 힘들다.

해삼 종묘산업을 보호해 주었으나 종묘업계는 그 역할 못하고 있고, 결국 해삼산업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으며, 해삼산업 전체로 보면 소중한 시간과 함께 발전할 기회 모두를 잃어버린 셈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으로 일본차의 수입을 억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보호해 주었으나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으며, 해삼산업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으로 일본차의 수입을 억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보호해 주었으나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해삼 수출산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앞당기려면 한시적으로 중국의 중간육성된 우량종묘에 대한 이식승인을 허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009년 9월 3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산하역할을 하여 한국해삼수출사업단이 출범하였다. 사업단에는 해삼 종묘, 양식, 가공, 수출업체 및 컨설턴트 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역발상에 의해 마케팅을 중심으로 '간해삼 가공수출-양식해삼 생산확대-우량종묘 공급안정화'로 일관화·체계화하는 한국형 해삼수출 마케팅모드를 구축하여 2020년까지 양식해삼 7천톤을 확보하여 건해삼 200톤, 2.5억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사업단은 지난해에 50만미의 해삼종묘를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씨 뿌림 양식, 전복 가두리 복합양식, 육상수조양식 등 시험양식을 하고 있으며, 우선 2010년도에 자연산 해삼만으로 200만 달러를 정산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하는 '3단계 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음, 미래를 현재화하여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MB 정부 호남출신 인사 배제 너무한다

MB 정부의 호남, 특히 광주·전남 출신의 인사 배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데 이어 곧 단행될 개각에서는 논의 과정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는 출범부터 '고소영' 인사로 불릴 만큼 특정 학교, 특정 종교, 특정 지역 편향과 호남출신 배제 인사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같은 편향인사는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지만 그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MB 정부 들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에 광주·전남 출신은 단 1명도 없다. 지난주 매듭지어진 하반기 청와대 인사에서도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권력 핵심부 인사에서 이 지역 출신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뿐만 아니다.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도 광주·전남 출신은 소외될 전망이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지역 출신은 비 주요부처에 끼워넣기식으로 겨우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뿐만 아니다.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도 광주·전남 출신은 소외될 전망이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지역 출신은 비 주요부처에 끼워넣기식으로 겨우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부분 준공 서둘러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르른 오는 2012년 부분 준공될 전망이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문화전당 내 5개 건물 중 일부라도 2012년 부분 준공해 시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 12만75㎡에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지는 문화전당은 크게 아시아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지식문화원, 문화창조원 등 5개 건축물로 구성된다. 이 중 옛 전남도청 본관과 옛 전남지방경찰청 등을 리모델링해 설치되는 민주평화교류원은 단일 건축물로, 예산이 뒷받침될 경우 2년 내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분 준공이기는 하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조기에 문을 열어 시민들이 오갈 수 있다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지방 붐과 침수 피해 등으로 잇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남로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문화전당은 국제 공모를 통해 우승규씨의 설계안이 확정된 뒤 그동안 랜드마크 논란과 전남도청 별관 보존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당초보다 완공시기가 3~4년 늦어지게 된 것이다.

광주의 도시 공동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동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문화전당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흥미로운 콘텐츠와 공연 등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부라도 2012년부터 준공해 시민들이 드나들다면 경제·문화적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준공이 우선이다. 2014년으로 예정된 전체 준공시기도 문화관광부측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준공시기 역시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

無等鼓

세대(世代)의 의미는 다양적이다. 한 생물이 태어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부터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동류 문화를 경험하는 집단(세대)을 가리키는 사회학적 구분까지, 요즘엔 후자의 쓰임새가 더 다양하다.

광복 이후 65년간 역동의 현대사만큼이나 한국인도 여러 세대로 나뉜다. 자본주의와 근대화, 민주화를 단기간에 성취하며 '압축성장'해온 흔적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에 매진해야 했던 '6·25 세대'가 그 첫 번째다. 반공주의 문화가 특색이던 시기다. 1960년 4·19 혁명과 산업화를 주도한 '4·19 세대'가 그 다음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또 다른 세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됐다.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에 다니고, 90년대 30대에 접어들어 '386세대'의 등장이다. 고도 성장의 기반 아래 진보주의와 저항정신으로 6·10 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

동을 이끌었다. 개인주의와 탈(脫) 정치, 소비지향성을 특징으로 한 '오렌지족'이 뒤를 잇지만 외환위기로 '생생 직장'이 붕괴하고 청년 실업이 고착화하면서 'IMF 세대'로 대체된다.

최근엔 물질적 풍요 속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G(글로벌)세대'와 검지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검지세대'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산 최고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경험한 이들은 삶의 질과 환경 같은 탈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 분당 수백 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엄지족'과도 대비되는 '검지족'은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로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면서 주목

받았다. 세대 개념을 체계화한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은 청년세대의 급격한 변화는 일률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봤다. 디지털시대 세대의 핵본질 속에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진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

검지세대



기고

신해룡



'수퍼 잡초'란 선진국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 저항성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능력이 잡초로 옮겨져 제조제를 사용해도 죽지 않는 잡초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의 '논 제조제 저항성 수퍼 잡초 발생 확산 동향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4만7000ha의 논에 제조제 저항성 잡초가 발견된 이래 2008년에는 10만7000여ha로 확산되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식하지 못한 탓에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제는 대체로 피를 죽이는 약 성분과 잎이 넓은 풀을 죽이는 성분을 혼합해 만든다. 그런데 성분들의 조합이 몇몇 특정 성분 중심으로 짜여있다 보니 회사가 다르거나 약 이름이 다른 제조제를 선택해도 실제로는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의 처방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퍼 잡초 친환경농법으로 해결

제조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잡초는 1998년 충남 서산농장에서 물옥잠이 처음 발견된 이래 지난해까지 과·밭갈기 비를 비롯해 우리나라 논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잡초 11종의 저항성 생태형이 학계에 보고됐다. 또한, 발생지역도 충남·전남을 비롯한 서해안 중심이었던 것이 경북·강원 등 동해안 지역까지 옮겨진 것으로 추정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말하는 '수퍼 잡초'는 GMO 작물의 유전자적 영향으로 잡초가 제조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것에서 비롯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종류의 제조제를 몇 년간 계속해서 사용함에 따라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잡초에서 맺은 씨앗들이 제조제에 내성을 가지면서 이러한 형질이 후대에까지 유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수퍼 잡초'라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용어보다는 '제조제 저항성 잡초'라는 표현이 낫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제조특성이 다른 약제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농업인 교육 때 강조해 온 사항이다. 그러나 같은 제조제 연용에 따른 폐해를

둘째 저항성 잡초가 문제된 논은 친환경 농법인 왕우렁이를 이용한 잡초관리 체계로 전환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왕우렁이는 일반 잡초든 저항성 잡초든 가리지 않고 먹어 치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왕우렁이는 여뀌와 물질경이를 제외하고 논에 발생하는 모든 잡초를 먹어 없앤다. 왕우렁이를 이용해 저항성 잡초의 개체수를 줄여야 우리 논에서 저항성 잡초가 없어지는 길 이 될 것이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왕우렁이 농법이다. 농약은 성분이나 다른 종류로 바꾸어 사용해도 해도 한 번 그 약으로 효과를 보면 매년 약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포닐유레아'라는 성분에 저항성을 가진 잡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 밖에도 6~7종의 약 성분으로 저항성을 가진 잡초가 보고되고 있다. 결국, 하나의 약 성분을 다룬 종류로 바뀌어도 언제 그 바뀐 약에 대해 저항성을 가진 잡초가 나타날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왕우렁이 농법으로 바꾸려는 이유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쌀 연구소장>

지자체·정부 '관광여건 개선' 해외에 적극 홍보해야

얼마 전 일본에 다녀온 친척이 들려준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다.

일본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 여행 안내 주의문에는 "한국의 음식점, 터미널, 공원 등 공공장소 공중 화장실은 지저분해서 사용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휴회 화장실만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화장실 문화가 개선

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현재는 많이 개선됐으므로 상관없는 일일겠지만 그렇지 단순한 문제는 아닌듯 하다. 과거의 나쁜 이미지가 여전히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는 화장실의 수준급으로 바뀌었으니 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각국에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박종심·목포시 동명동



법조칼럼

최종원



1983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중에 '이중 함정'(원제 The Star Chamber)이라는 법정영화가 있다. 특이하게도 판사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심증(心證)상 유죄임이 분명한 피고인을 물증(物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때문에 고민하던 주인공은, 어느 날 선배 판사로부터 'Star Chamber'라는 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게 된다.

바깥의 시선은 더욱 분노에 차 있는 것 같다. 뭐 하러 저런 인간 이하의 행위를 한 자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재판관을 권리'니 하며 인권 타령을 한다 는 말인가. 아니,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한가롭게 재판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인간 이하의 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는 보응의 감정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데

범죄자와 인간의 권리

그 클럽은 판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심증상 유죄인데도 증거법칙상 부득이 무죄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모아 다시 사적(私的) 재판하고 다수결에 의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다음 유죄로 결론이 날 경우 '킬러'를 고용하여 해당 피고인을 살해하는 조직이었다.

주인공은 고민 끝에 그 클럽에 가입하게 되고 자신이 무죄 선고를 하였던 살인 사건 하나를 클럽 테이블에 제출하게 되었다.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론이 났고 클럽은 킬러를 고용하여 그 피고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하게 이른다.

그런데 그 피고인은 실제로 무고한 사람이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이를 알게 된 주인공은 그 킬러를 쫓아가 혈투 끝에 무고한 희생자를 막아내게 된다 는 이야기이다.

최근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입에 담기에도 힘들 만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태연한 언행을 일삼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부아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 하루빨리 재판이 진행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헤아리며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는 법정

다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정상적인 정서일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서적 비난 가능성이 그자가 그 짓을 하였다든 사실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비난받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언제나 완벽하다고 전제할 수 없는 이상, 한 사람의 인생을 단죄하려면 더욱 신중한 진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관을 권리'는 무고한 한 사람의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 국가공동체의 규범적 결단인 것이다.

'인혁당 사건'이나 '5월의 광주' 등 억울한 사법피해의 역사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영화 '이중함정'의 이야기처럼 억울한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마음으로 헌법적 가치에 주목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여겨졌던 요즘이다. 우리 헌법이 천명한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보다 민감한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